

<카자흐스탄의 여성지위>

여성문제 분야 국가정책

현재 카자흐스탄은 전환기적 변화과정을 지나고 있지만 정부의 양성평등 원칙수호에는 변함이 없다.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제도적 노력은 1995년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이때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가족, 여성 및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자문협의위원회가 창설되었다. 또한 1998년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가족 및 여성문제 국가위원회도 창설되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여성지위 개선을 위한 국가적 정책지침(1999)'을 채택했고 2002년까지의 평가에 의하면 이 계획의 80% 정도가 시행되었다. 이는 여성의 결정권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이다. 하지만 모두 시행된 것은 아니며, 특히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나 기회제공에 대한 법률이 채택된 것도 아니다.

게다가 2003년 새천년 목표 달성을 위해 채택된 '카자흐스탄 여성정책안' 시행도 이전 정책의 이데올로기적 인식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있고 적절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 정책안은 2010년까지 정부의 중 단기 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단기 정책이다.

2004년 말부터 국가위원회에서는 '2005-2015년 카자흐스탄 양성평등 전략'을 구상 중 이다. 이 전략은 법률, 사회정책, 정책참여, 경제, 의료, 여성 및 어린이 폭력근절, 교역, 정보정책, 문화, 과학 및 교육 분야의 양성평등 시행을 위한 대책이다. 이 전략을 마련하면서 여성단체, 국가기관 및 유관 국제단체(UNIFEM, UNDP, OSCE)간 협력관계가 좀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형태를 띄게 되었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전략안에 서명한 상태는 아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국가발전 차원에서 폭넓게 여성문제를 파악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국제단체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점차 결실을 맺어가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이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이면을 파악하고 양성평등 정책 시행을 위한 노력을 활발히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내외 기관 전문가들이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정책 시행자, 공무원 및 각계 대표들의 이데올로기적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다고 한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공무원들은 «여성은 어머니», «여성은 가정의 보호자»로 인식하는 등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집안일이나 출산에만 국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소위 위에서 제정되고 시행되는 국가의 여성정책은 정치적으로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지만 아직까지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설령

카자흐스탄이 «민주국가, 복지국가, 법치국가이며 사회국가»를 지향하는 유엔의 회원국임에도 말이다(카자흐스탄 헌법).

정부는 다양한 국제협약이나 조약에 동참하면서도 정작 여성정책 시행에 없어서는 안될 국내법 제정은 망설이고 있다.

최근 두 가지 중요한 여성평등법 도입에 대한 정부의 반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바로 «카자흐스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2001년부터 마련되고 있음)와 «가정폭력 근절과 예방»(1999년부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6년 하원(마질리스)의 법안 계획에 포함됨)이다. 두 법안 모두 국제적 검증을 거쳤으며 정부대표, 국제기관, 전문가 및 여성 비정부기구의 전문가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여성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제안이나 결정을 내리는 기관은 정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산하 여성가족국가위원회는 정부의 재정적인 원조와 국제기관 전문가, 관련기관들의 행정적 지원, 여성단체의 지원을 받아 정부에서 결정된 사안을 시행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국내 여성문제의 더딘 개선 움직임에 대해 정부는 «다수가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문제의 본질과 중요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이는 행정부의 여성평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적대심, 중대한 법안시행을 우선시, 여성쿼터 지원의 부재, 국가위원회의 제도적 지위 미비, 여성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부재와 같은 현실이 국내 여성평등 달성에 저해가 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여성평등 달성을 위한 국민사회의 참여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국가와 대화할 수 있는 입지를 제도적으로 강화한 국민사회가 질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비정부기구는 외국기관, 금융산업 단체 및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발전에 있어서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3년 등록된 비정부기구 총 수는 2430개 이고 이 중 여성기관은 150여 개 이다. 전문가들의 평가에 따르면 비정부기구에서 일하는 여성직원의 수는 남성에 비해 3배가 많다. 비정부기구는 수도(알마아타, 아스타나)와 대도시 지역 및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수가 많은 도시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와 협력하는 기관 수는 비정부기구의 회원기관 수를 상회한다. 그리고 후원 기관으로부터 직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혜를 가진 비정부기구도 생겨났다. 하지만 비정부기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각 비정부기구 리더들의 열성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적 지원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산하의 기관으로서 활동하지 않는 비정부기구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국가를 대표하는 기관의 선거에 참여하는 방법뿐이다.

국가발전에 있어서 여성사회단체가 실질적으로 큰 공헌을 했다는 사실에 상반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아직까지 여성운동은 사회 정책상 주변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 정책에 대한 여성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라고 생각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하지만 긍정주의자들은 반대로 여성 비정부기구의 역할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고 한다. 이들의 노력 덕분에 새로운 법안의 마련, 법안의 양성평등 의식 유무 점검, 차별조항 폐지, 폭넓은 양성평등 운동이 가능해졌고 공무원, 경찰, 청년층, 농민, 빈곤여성 및 여러 계층의 국민들이 양성평등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OSCE 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프로젝트를 통해 2001 년 여성단체에서는 125 회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 세미나에는 2 천 5 백 명이 참석했다. 여성단체들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권리 및 기회제공, 가정폭력, 비상업기관, 사회적 요구, 교육, 2005-2015 카자흐스탄 양성평등 전략 등에 관한 논의에 활발히 참여했다.

여성문제 분석에 적절한 예산할당 작업을 시작하지 못한 정부와 달리 여성 비정부기구는 주정부 및 시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할당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고 있다. 우스트 카메노고르스크의 «Status»라는 여성연합은 «지역정부의 여성예산»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문화계 및 지식계 등 학계에서 여성문제를 대하는 시선은 조용히 좌시하는 태도에서 긍정적인 형태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다.

실사 카자흐스탄의 교육과학부가 여성교육에 무관심하고 여성가족국가위원회에서 이에 적절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카자흐스탄내 여성교육은 문화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 않은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다.

여성평등에 대한 새로운 인식도입에 드러내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없지만 의욕적이고 준비된 교육인의 수가 많지 않아서 새로운 인식의 도입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카자흐스탄 여성의 권리

카자흐스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의 권리에 관한 모니터링이 실시 되었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카자흐스탄내 일하는 여성의 수는 전체 노동인구 중 45.8%를 차지한다. 상당수의 여성들이 보건복지, 식료업, 정보 및 회계 업무, 문화 및 금융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 노동가용인구의 16.5%가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다. 현재 카자흐스탄의 실업률은 13%이며 이 중 3분의 2가 여성이다.

«카자흐스탄의 일하는 여성연합회»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카자흐스탄 의회의 여성은 15명에 불과하다. 이 중 3명은 장관, 국가위원회와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여성 4명, 외국의 대사로 임명된 여성이 3명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대표들 중 여성의 수는 7만4천5백 명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서 50여 개 이상의 여성단체가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처음으로 여성의 권익 보호, 경제 및 정치분야의 여성운동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민주당이 창당되었다. 카자흐스탄내 여성권리 모니터링 결과는 문서상으로도 발표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 문제를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면할수록 이 문제는 빨리 해결될 것이다»라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기관에서는 말한다. 그러나 현재 모니터링 결과물을 자유롭게 판매하지 않고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모니터링을 시행한 기관에서만 알고 있다.

«카자흐스탄의 일하는 여성연합회»의 대표인 라우산 사르셈바예바는 카자흐스탄의 지위체계상 여성은 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고 말한다.

카자흐스탄에서 여성이 교육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다. 고등교육을 받는 여학생의 수는 57%, 남학생의 수는 43%이다. 교사의 성비를 봐도 여성이 압도적이다. 그러나 교수성비에 있어서는 수직적 차별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박사과 교수의 81%, 교수 후보자인 'Docent(부교수급)'의 57%, 박사과정 학생의 52%가 남성이다.

카자흐스탄 여성의 생활환경 및 생식건강

알마아타, 아스타나, 아티라이, 세미팔라틴스크, 타라즈 지역의 가임연령 여성 1200 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4 명중 1 명은 해로운 습관을 가지고 있다(흡연, 음주).

- 2 명중 1 명이 만성적 질병을 앓고 있으며 이 중 7%에 해당하는 여성의 자녀가 유전인자를 물려받았다.

- 12-13 명의 여성 중 1 명의 자녀가 선천적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다. 선천적 발달장애 중 중앙신경시스템 장애가 가장 많고 차례대로 심장·혈관장애, 위·대장 장애, 뼈·관절 장애로 나타나고 있다.

- 여성의 3분의 2가 난산으로 인해 신생아의 9.8%가 사산되고 8.3%가 출생 후 사망한다. 또한 5.4%는 유전적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고 10.5%는 선천적 발달장애를 갖게 된다.

- 54.4% 여성의 난산 원인이 해로운 생태학적 요인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49.6%는 사회적 문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자연환경 및 식료품 오염, 낙후된 노동환경, 유해산업, 만성적 질병, 산전교육과 산후관리 부족 등으로 인해 상당수의 아이들이 선천적 발달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있다.

국가가 임신여성과 임신중절에 대한 무료 의료서비스 제공을 실시하는 것은 카자흐스탄 미래세대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모든 지역에서 이러한 의료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방에서는 산전교육 시스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백만 카자흐스탄 가정의 55%만이 가족 구성원수가 4 명이거나 그 이상이다. 최근 10 년 동안 카자흐스탄의 출생률은 2 배 정도 감소했다. UN 에서는 2050 년 카자흐스탄의 인구가 1 천 6 백만 명 이하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카자흐스탄과 같은 상황의 생태학적 문제를 겪고 있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다. 기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환경보호를 위한 지출수준은 부끄러울 정도다(연간 국민 한 명당 2 센트, 1 평방미터당 1 달러). 핵실험으로 인한 오염, 우라늄 및 석유 채굴, 채광 및 화학산업기업들의 환경오염, 도시 대기 중 오염물질 다량함유와 과도한 먼지발생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전세계 그 어디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국내 생식건강 수준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곳이 아랄지역인데 이 지역 가임여성의 90%가 만성빈혈로 고통받고 있다.

구소련시대 원자력 폭탄과 수소폭탄의 절반이 카자흐스탄의 우라늄으로 제조되었다. 생태학적 기준을 지키지 않은 채 우라늄 채굴이 이루어지던 지역에는 100 여 개 이상의 탄광이 버려진 채로 남아있다. 거대한 크기의 탄광을 매립하거나 개간하기 위해서는 13 억 텡게가 필요하다. 물과 바람으로 인한 침식 때문에 12-13 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13%의 영토가 방사능 위험에 노출되었다. 하지만 처음으로 카자흐스탄 의료진은 핵실험으로 인해 유출된 소량의 방사능이 불러온 유전학적 영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통제가 방사능 관련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은 세미팔라틴스크주(州) 아바이스크 지역보다 다운증후군과 소두증(microcephaly) 발생 정도가 6 배 정도 낮다.

이와 같은 요인들과 여성의 무지함, 산전교육의 미비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선천적 발달장애로 고통 받고 병약하게 태어난다.

국내에 전문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선천적 심장장애나 유전질환을 미리 알고 대처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출산 전에 아이의 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다. 게다가 유전학과가 있는 의과대학은 단 한군데도 없다. 관련 분야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의 경우를 보면 선천적 발달장애 예방에 투자된 1 달러로 미리 대처하지 못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의 치료에 필요한 100 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준다.

생태법 및 산모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제정을 위해 수백만 달러가 지출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시행되지 않고 현재 상황만 계속 악화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서 여성의 재생산 권리는 거의 인식되고 있지 않다. 노동법상 야간근무에도 임신여성을 고용할 수 있다. 게다가 출산휴가는 3년에서 6개월로 단축되었다.

노동, 고용 및 급여수준에서도 여성은 차별을 받는다. 실업 인구 중 여성이 55%를 차지한다. 게다가 모든 경제 및 사회분야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평균급여는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현재 카자흐스탄에 형성된 사회적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일부다처제가 드물게 나타나면서 사실상 일부일처제만 용인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일부다처제는 아랄만(중국계 카작인)이나 독실한 이슬람 문화권 국가에서 살다가 역사적 고향으로 돌아온 망명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유행처럼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들도 중혼은 카자흐스탄인들이 유목민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제도권 국가들에서는 일부다처제에 제약이 없으며 이로 인해 그 지역에 거주했던 카자흐인들도 이 제도를 따르게 되었다. 다시 말해 소위 수숙혼(嫂叔婚)이라 불리는 제도는 전통 카자흐스탄 관습에 따라 시숙이 죽은 형제의 아내와 결혼할 권리가 있거나 결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여러 명의 아내를 갖게 된 남자들은 이란이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망명한 카자흐인들 중에서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보수적인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지역인 카자흐스탄 남부지역에 살고 있다.

예전에는 순수 카자흐인 혈통을 가진 여성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카자흐인들과 결혼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많이 변해서 카자흐인들 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에서 살고 있는 여러 민족의 남성, 비CIS국가의 외국인들과도 결혼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다.